

욥기

세션 28: 고통의 신학과 욥기

존 월튼

이것은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8회, 고난과 욥기입니다.

소개 [00:22-1:03]

이제 우리는 욥기에 나오는 고난의 신학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책은 실제로 고통에 대한 답을 알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 고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음을 기억하십시오. .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 적절하게 생각하도록 돕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욥기에서 고통의 신학의 중요한 요소 중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수준과 유형 [1:03-2:19]

물론 우리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수많은 다른 수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이거나 쇠약해지는 통증이나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 수치심, 불안, 학대 또는 깨진 관계와 같은 심리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적

고통, 섭식 장애, HIV 또는 신경계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이나 말기 환자를 돌보면서 고통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압적인 정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인신매매, 기아, 질병의 희생자들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이 우리의 경험과 세상에 매우 다양한 수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뜨릴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서진 세상의 특징입니다.

고통받는 질문 제기 [2:19-4:32]

그래서 고통에 관한 모든 신학은 우리가 고통과 관련하여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신학이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그는 그것이 계속되도록 허용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 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하고 전능하며 공의와 연민으로 특징지어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이 만연한 세상을 창조는 고사하고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회의론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적합한 신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을 뿐,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일을 허용하는 그러한 신은 우리가 경배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신이 어떤 외부 기준에 순응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설명을 구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삶이나 세상이 왜 그런가에 대해 묻지도 않습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고통의 신학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것이든 보편적인 것이든 고난에 비추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욕기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가지 관점과 관련하여 접근해 봅시다.

고통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

1) 고통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다[4:32-5:07]

첫째, 고통은 모든 인류의 몫입니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고통을 겪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통은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고통받을 한 사람과 저기서 고통받을 한 사람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덜 명백합니다.

2) 고통은 진행 중인 창조 의 우연성이다[5:07-7:54].

둘째, 고통은 진행 중인 창조 의 우연성입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질서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으며, 새 창조 때까지 살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질서가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우발 사태 중 하나입니다. 비질서와 무질서 모두 고통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고통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 잠재적인 해를 경고하는 신경계를 갖도록 우리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고장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감정을 통해 상처받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아무 것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신이 신경계와 감정을 갖도록 우리를 창조한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에 취약합니다. 사랑은 종종 이생에서 고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종류의 몸으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기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상은 고통이 없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진행 중인 창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예상한다면 그것을 경험할 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견디기 쉽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위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3) 본질적으로 죄와 연결되지 않은 고통 [7:54-11:26]

셋째, 고통은 본질적으로 죄와 연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고통은 무질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죄를 짓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비질서적 불완전 창조의 결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어떤 고통은 틀림없이 죄의 직접적인 자연적 결과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고통을 죄에 대한 형벌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목소리만이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예언적인 목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7에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동과 상황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성서가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교훈입니다. 충분해야 합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아니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까? 방향을 알려주는 탐색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관리하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삶이나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승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멀리 떨어져 있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대 방향에서 실수가 될 것입니다.

“허용” 및 “허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들 중 일부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언어이고 신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존 폴킹혼(John Polkinghorne)은 “세상의 고통과 악은 신의 나약함, 감독 또는 냉담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도록 허용된 피조물의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의 비용은 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4) 믿음을 깊게 하는 기회로서의 고난[11:26-14:18]

넷째, 고통의 신학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인생에서 경험한 고통의 양과 상관없이 그 고통은 좋은 나쁜든 우리가 누구인지에 기여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로마서 5:3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믿음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물을 건너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요동치는 물을 피하도록 돕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들을 볼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보다 시련이나 위기의 시간 내내 하나님께 신실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족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으면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삶이 가장 밑바닥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사라져도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 있으며 우리가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5)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14:18-15:01]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관점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강력하게 증거하는 패배를 통해 승리를 가져올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수로부터 구원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10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견디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결론 [15:01-15:49]

이들 중 어느 것도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제거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와 인간의 곤경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에서 그분을 증거할 때 우리의 고난을 통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약간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음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8회, 고난과
욕기입니다. [15:49]